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 치 경



1949년 공산당과의 내전 끝에 패해 타이완(臺灣)으로 쫓겨간 국민당의 장제스(蔣介石)는 부파라면 칠을 것이다.

당시 미국과 손을 잡았던 국민당군은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던 위주였던 공산당군보다 전력이 강했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국민당군은 '접두'에서 아니라 '부파'에 졌다는 말이 나왔다. 국민당군이 미국제 병기를 마오쩌둥(毛澤東) 군대에 패하였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반복되는 부파 일소

절차부심하던 장제스는 부파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조카며느리가 연루된 밀수사건이 터졌다. 소식을 들은 장제스는 조카며느리에게 선물상자를 하나 보냈다. 상자 안에는 권총이 들어 있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온다.

그러나 50년이 지나 타이완 전 총통 천

수이볜(陳水扁)이 재직 시 본인과 가족들의 공금횡령 사건으로 구속됐다. 장제스가 조카며느리에게 권총까지 보내며 외쳤던 타이완의 부파척결은 '다람쥐 챗바퀴도는' 일이 되고 만 셈이다.

비리 척결? '분리수거'처럼

부파척결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도 설지 않다. 서슬 펴려던 제4공화국 시절, 서정 쇄신(庶政革新)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두를 섬뜩하게 했다. '공무원의 부조리를 뿐만 아니라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서정 쇄신에 걸려든 공직자는 대부분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지금 또 다시 비리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의 강력

한 의지에 따라 ▲권력비리 ▲교육비리 ▲토착비리 척결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번 '3비(三非) 척결'의 시발점은 서울시교육청 사태다.

장학사가 되기 위해 웃 사람에게 돈을 건네고, 학교 시설업자들에게 돈을 받아 간부에게 상납하는 전형적인 비리였다.

파문이 커지며 마침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됐다. 서울시내 교장 157명은 수학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조직사회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무언가 '건네야'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다. 특히 관청 주변에서 생업을 영위하는 '을' 입장의 업자가 비즈니스 성사 결정권을 쥐고 있는 '갑'에게 밀보이지 않기 위해 '드려야 아님' 하는 비리구조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일종의 '하위문화'(下位文化·subculture)로 볼 수 있다.

'문화'로 뿌리내려야 성과

비리척결 주진 소식을 전해 들은 어떤 이는 대뜸 '쓰레기 분리수거'를 들먹였다. 쓰레기 가운데 재활용할 수 있는 비닐이나 우유 팩과 유리병, 플라스틱 등을 종류별로 가려내는 분리수거제 도입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성공 가능성에 대해 거뭇했다.

그러나 이전 지지지 않으면 옆 사람의 핀잔을 들어야 한다. 분리수거제가 당연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문화'로 평가한 것이다.

비리척결도 분리수거제처럼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그래야만 누군가 또다시 부파일소라는 솔로건을 내げる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했을 때 C-20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맞게 맞다.

〈사회1부장〉 unipark@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임명재



우리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먼저 아이들의 학습시간의 치열함이 내가 그 나이였던 시간과 나의 후배들이 겪었던 그것과 그리고 나의 아이들이 현재 짚어지고 가고 있는 무게의 차이로 체험하고 있다. 아이들은 이미 경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더 잘살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임을 알고 있는 듯하다.

경쟁은 숫자로 표시되는 것이고 그

있는 환경만 제공할 뿐이라며 허울 좋게 꾸며대고 있지만 이미 죽어라 노력해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하루 세끼를 먹느냐 아니면 굶느냐, 사고교육을 받느냐 그렇지 못느냐,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 남들이 누리고 있는 정도의 여유로 움 그리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의 여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데 커다란 암초가 될 것이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로 좌파

현미경으로 봐야 할 사회문제

숫자는 때로는 학급 등수처럼 적은 것 이 더 낫기도 하고 돈처럼 많을수록 경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물론 우리 모두가 1등과 2등의 차이가 커지면 칠수록 1등의 삶도 더 위험해지고 국가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노숙자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사람과 철거거전의 폐허에서 전기와 수도의 공급도 끊긴 채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왜 이러고 계십니까? 나서서 일을 하세요"라고 말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가슴이 달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했다. 결국 국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사회적 약자 스스로가 극복하도록 방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이 평등하게 경쟁할 수

다 우파대로 편가를 것이 아니다. 나는 우파이기 때문에 좌파가 생각했던 것은 결코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는 편견이며 오만이다. 결국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부유한 사람이 한끼에 2만원짜리 점심을 먹는다면 가난한 사람은 고액은 고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뜻한 밥한 끼를 먹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가격의 차이가 있을 뿐 의식주와 교육 그리고 의료혜택은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든 여유가 있어야 소비를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을 이루지 않겠는가? 4대강에 쏟아지고 있는 돈은 허투루 가버리지만 사회적 약자들의 경쟁력이 투입된다면 국가적 저축이 될 것이다.

〈약사·2005년 12월 수상자〉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 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장애인 휠체어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 배려 필요

예전과 달리 요즘 전철에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해 휠체어가 들어가 있을 공간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거기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서 있다. 그리고 휠체어를 보면서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 장애인은 휠체어를 통로에 세운다.

휠체어는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다리와 같은 구실을 한다. 그 다리가 비장애인의 다리보다 커서 공간을 많이 차지할 뿐이다.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 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지정 공간을 비워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휠체어를 탄 사람이 들 이상일 때에는 휠체어를 통로에 세워 놓거나 문 쪽에 세워 놓아 이해할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불편함이 있다. 거기에도 힘들게 탄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을 더해 줄까?

▲나윤성·광주시 남구 봉선2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기고

최현주



광주시가 지난해 모든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을 모아 유치에 성공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2015 하계U대회)도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는가에 개최의 성과가 달려 있다.

세계 3대 스포츠 행사 가운데 하나로 170개국 2만여명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2015 하계U대회의 광주 유치는 지난 총 7개국과 함께 2015년 FISU 위원회를 설득하는 일정과 U대회를 반드시 유치하려는 우리 시민들의 아낌없는 참여가 있

주력산업과 첨단부품소재, 디자인,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산업 등 4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105억불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수출 제조업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지역에 연구·개발(R&D) 특구가 지정되는 흐름을 거둬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15조 341억원에 이르고, 고용창출 효과도 2만~3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등 도시를 건

2015 하계U대회는 전 시민이 함께

었기에 가능했다.

하계U대회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시민들의 모습은 매우 당당했고,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를 통해 의향, 예상, 미향의 도시로 알려진 빛과 고을 광주의 이미지를 지구촌 젊은이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또한,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져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였다. 지금 광주의 자존심과 긍지를 펼칠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철학의 기회를 맞은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동안 광주시는 '1등 광주건설'을 위해 국제도시로서 면모를 갖춰 가는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새로운 발전도래를 구축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울산, 인천에 이어 부산과 함께 수출 100억불을 달성했고, 낙후된 소비도시에서 생산과 수출도시로 탈바꿈하는 성과도 거뒀다.

광주가 품격 높은 국제도시로 거듭 도약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2015 하계U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가 봄을 터지듯 이어졌으면 한다.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항암제 '글리벡' 환자 부담 커 보험 적용됐으면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유전부족 무전부족이 아니라 유전부족 무전유死이다"라는 말이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말이다. 글리벡이라는 항암제가 위험 비싸기 때문에 그 약을 계속 먹을 경우 천문학적인 약값을 감당해야 하는 가족은 집안 재산 다 팔아 거둘나기 때문에 글리벡 항암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진다.

글리벡은 한 달에 280만원이 든다. 약값이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이유는 현재 글리벡은 재발방지를 위한 보조치료 때는 건강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리벡 보조치료 환자들은 약값의 100%를 본인

이 부담해 왔다.

최근 친구가 암으로 휴직한 뒤 가계 수입은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고 아내의 수입으로만 연명하는 형편이다. 아내 화자 버는 돈으로는 두 아이의 양육과 항암치료, 가정생활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복용하면 글리벡을 중단해야 하는 쳐지다.

돈이 없어서 항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니 그 정신적 충격과 참담함은 진정으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 정부는 이 약의 보조치료 때도 건강 보험을 적용하고, 그 약을 만드는 회사 역시 약값을 내려줘야 한다.

〈권윤영·광주시 서구 치평동

시설

허술한 위기대응 국민들은 불안하다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정부와 군 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거듭되는 해명에도 각종 의문점이 제기되고 유언비어까지 유포되고 있는 것도 허술한 위기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는 커녕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사고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대다수 첨몰 시각과 위치, 상황 등에 대해 말을 바꾸면서 혼선을 자초했다.

무엇보다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유언비어나 각종 의혹은 불신에서 비롯된다. 한번 신뢰에 금이 가면 제 아무리 정확한 사실을 내놓더라도 설득력을 얻기가 어렵다. 이번 일은 원인이 무엇인 대한민국의 위기다. 더 큰 혼란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정치권도 당리당락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끊이지 않는 교육비리 어디가 끝인가

교육계 비리가 끊이 보이지 않는다. 매관매직으로 시작된 서울교육청 비리가 이번에는 수학여행과 수련회 등 학교단체 행사 비리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학교 단체행사 때 특정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서울 지역 전·현직 교장 157명을 적발해 뇌물수수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 경·경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서울교육청 내 인사는 공정택 전 교육감을 비롯해 무려 208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쯤되면 교육계가 얼마나 맑아지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고질적인 교육비리가 서울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광주·전남 지역 교육계 내부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미 검찰이 지역 시·도교육청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지역 내 일선학교와 부적절한 계약을 맺고 '뒷돈'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된 창호제작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

다. 또한 학교에 교구 납품을 일괄하고 납품비 일부를 청진 기록을 받고 있는 한 브로커와 광주지역 초·중·고 학교 3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같은 납품비리 의혹이 만에 하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역 교육계도 '비리 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에 대한 처우는 정년과 보수 등 모든 면에서 어느 직종보다도 안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사회적 대우가 낮은 것도 아니다. 이는 한 눈 팔지 말고 오직 국가의 동량(棟樑)을 길러내는 책무에 충실히 하라는 배려에 있다. 그런데 교육계 내부가 '비리 백화점'으로 불릴 만큼 썩어 있으니 국민적 분노를 자아낼 만 하다.

교육비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검은 돈이나 수수하는 교육자에게 나라의 미래인 우리의 자녀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이 좌고 우면(左顧右盼)하지 말고 교육비리 척결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

無等鼓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秦)의 기틀을 세운 이는 상양이다. 상양은 10년간 진나라의 재상을 지내며 형벌 위주의 통치술과 부국강병책으로 나라를 이끌었다. 진 흉공의 지지를 등에 업고 과감한 법제개혁과 세제개혁을 통해 모든 방면에 걸쳐 대수술을 단행했다.

상양은 법령을 선포하기 전 당시 수도였던 합양의 납문에 나무를 세우고 방을 불었다.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지에 깨끗하고 친절한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결집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다.

광산강 정비사업을 놓고 말들이 많다. 하천부지의 영농 순길 보상금 지급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하천부지에 대한 경작중단을 요구, 417명은 경작을 중단했으나 700여명은 버티기로 일관 했다.

문제는 정부 방침에 불복했던 700여명은 영농 순길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경작을 중단했던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